

한국발명진흥회 종합교육연수원, 교육부 평가 '우수기관' 연속 선정 쾌거



<한국발명진흥회 종합교육연수원은 '24년 교육부 운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김운선 종합교육연수원장(왼쪽)이 교육부 표창을 받았다.>

한국발명진흥회 종합교육연수원(원장 김운선)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4년 교육부 인가 종합교육연수원 운영평가'에서 2회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운영평가는 교육부가 인가한 연수기관 16개를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평가로 △인가 자격요건 △기관운영 △연수프로그램 운영 △성과·역량제고 등 4개 영역, 8개 평가항목, 18개 평가지표로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발명진흥회 종합교육연수원은 연구인프라 관리, 교육과정 운영, 연수성과 등 모든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자체 보유한 연구조직이 개발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이를 활용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은 평가위원들에게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발명진흥회 종합교육연수원은 2015년 교육부로부터 발명·지식재산분야에 특화된 교원연수기관으로 인가받았으며, 지난 10년간 교원들에게 발명·지식재산과 관련한 다양하고 심도있는 연수 프로그램 제공과 운영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역점을 두어 왔다.

김운선 한국발명진흥회 종합교육연수원장은 “이번 평가결과는 전국 207개 발명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쌓아온 운영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구성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미래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원연수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각오를 전했다.